

문화예술 넘어 수출산업으로... K-콘텐츠, 대학지형 바꾼다

대학가, K-콘텐츠 학과 신설 잇따라
한류 성장에 취업경쟁력 강화 전략

중앙대 글로벌 음악산업 인재 키워
성신여대 한류콘텐츠 융합교육 운영
카이스트 컬처테크 분야 공동연구



성신여대 융합산업대학원 K-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이 지난해 12월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와 조범규 영화감독(왼쪽에서 네번째), 을 초청해 영화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성신여대

K팝과 드라마로 확산된 한류 콘텐츠가 대학의 학과 편제와 산학협력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대학들은 K콘텐츠를 문화예술 교육의 한 영역이 아니라 수출 산업과 신산업 인재 양성 분야로 보고, 관련 학과-전공 신설과 기업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빌보드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글로벌 음악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양측은 음악-콘텐츠 산업 관련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형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대가 보유한 문화예술-콘텐츠 교육 기반에 빌보드코리아의 글로벌 음악 산업 네트워크를 더해 K팝과 음악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K콘텐츠를 정규 학위과정으로 끌어올

린 대학도 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관련 학과가 문화산업·공연·매니지먼트 교육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K팝과 드라마, 뷰티 등 한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K컬처 교육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성신여대는 2023년 2학기 융합산업대학원에 K-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을 개설하고 2024년 1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K무비, K드라마, K뮤직, K팝댄스, K스타일링 등 한류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운영 중이다. 특히 기존

대학 교육에서 음악·영화·연기·콘텐츠 등이 개별 학과 단위로 나누어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성신여대는 K컬처 산업에 필요한 요소를 하나의 융합형 교육 체계로 묶은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실무형 인재 양성이 목표다.

고려대도 지난해 미디어대학 산하에 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를 신설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스포츠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을 이끌 인

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콘텐츠 제작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전략, 글로벌 시장 이해까지 교육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변화는 K콘텐츠 산업이 실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021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고, 수출액은 140억7543만달러로 전년 대비 5.5%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게임산업이 85억347만달러로 가장 컸고, 음악산업 18억145만달러, 방송·영상산업 12억5718만달러 순이었다.

이 대학들의 K콘텐츠 인재 양성 흐름 속에서 기업 협력의 분야와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세종대도 최근 코리아교육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K콘텐츠 인재 양성에 나섰다. K뷰티, K푸드, K팝, K엔터테인먼트 분야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실무 교육과 대학원 진학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공계 대학도 관련 흐름에 합류했다. KAIST는 SM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인

공지능(AI),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공연 등 '컬처테크' 분야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 확보로 확장되면서 대학 교육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대학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류 산업의 성장과 확장성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콘텐츠 자체는 물론 뷰티·식품·패션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와 신산업 대응,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교육을 차별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섭 성신여대 융합산업대학원 K-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 교수는 "K컬처는 뷰티·식품·패션 등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시아, 유럽 등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실제 유학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학 교육도 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가정에서 인성교육... 학부모용 콘텐츠 제공

서울교육청,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생 대상 '인성톡톡' 8편 제작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용 인성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가정 연계 인성교육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용 인성교육 콘텐츠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톡톡(Talk-Tok)' 8편을 제작해 지난 15일부터 2주간격으로 1편씩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됐다. 자녀의 포레갈등, 책임 회피, 거짓말 등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대상 인성교육 캠페인 '열두 달 만나-다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만나다'는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나부터 고운 말 쓰기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기 등을 뜻한다.

3~4월에는 친구와의 관계 개선과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운영했고, 5월부터는 가정과 연계해 가족 간 친밀감, 감사 표현, 어른에 대한 예의와 배려-존중 등을 중점 과제로 다루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응답자의 85%, 교원·학부모 응답자의 97%가 가정과 학교

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가정'을 꼽았다.

콘텐츠는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 학교 누리집, 온라인 학부모 소통 창구 등으로 안내된다. 유튜브 계정 '서울시교육청TV'와 '학부모시민협력TV'에서도 볼 수 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은 "인성교육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안성시,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나서

건축 현장에 안전자료 QR 배포
17개국 언어로 안전 콘텐츠 제공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국어 안전자료를 연결하는 QR코드 서비스가 현장에 배포된다.

안성시는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QR코드 기반 안전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즉시 안전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건설업 전반에서 언어 소통 문제와 숙련도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현장 맞춤형 교육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안성시는 기존 종이 매뉴얼 중심의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근로자가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산업안전 관련 전문 자료로 즉시 연결되는 방식이다. 산업안전포털에는 17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전 콘텐츠가 제공된다. 안전보호구 착용 영상과 심폐소생술 방법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영상 등이 포함돼 근로자가 모국어 기반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성시는 건축과 건축안전팀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QR코드를 배부하고 건축 안전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개인컵 쓰고 500원 할인받으세요"

가맹매장서 개인 컵 할인제 시행
텀블러데이엔 2500원 추가할인

서울시가 18일부터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 할인 최소 100원에 서울시 지원금 400원이 더해져 1잔당 최소 5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 컵 이용 할인제는 지원 단가와 참여 기준이 조정됐다. 시는 지원금을 기존 400원에서 500원으로 높이고, 서울페이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페이가맹 매장의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매장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매장당 하루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참여 매장 모집은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매장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 매장은 개인 컵 이용 시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결제 단말기 등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개인 컵 할인제와 서울페이 포인트제를 운영해왔다. 2025년까지 약 26만여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0 | 해질 / 19:38

5월 19일 (화)
음력 : 4월 3일

수도권 날씨
18~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5/26, 동두천 16/27, 가평 14/27, 파주 15/26, 서울 18/27, 양평 16/28, 인천 17/27, 수원 16/27, 용인 16/27, 평택 15/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의 ‘대만 문제 중국과 협상’ 발언, 양안 대립 위험 높여” /사진 뉴시스
▲“시가 금융 시스템 흔들 수도”...엔트로픽, 주요 국 중앙은행에 브리핑

▲AI 넘어 에너지·방산까지...“아시아, 산업 슈퍼 사이클 간다”
▲이란전 변수에 국제유가 다시 급등...브렌트유 111달러 돌파

▲호르무즈 이어 인터넷까지?...이란 해저케이블 통제·파손 우려
▲시 번역 시대 직격탄...中 대학, 韓·日 등 외국어 과정 축소·폐쇄